

2022년 2월

한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2월 3주차 HOT ISSUE

- 농식품부,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
- 경북도 뚫렸다... 상주서 ASF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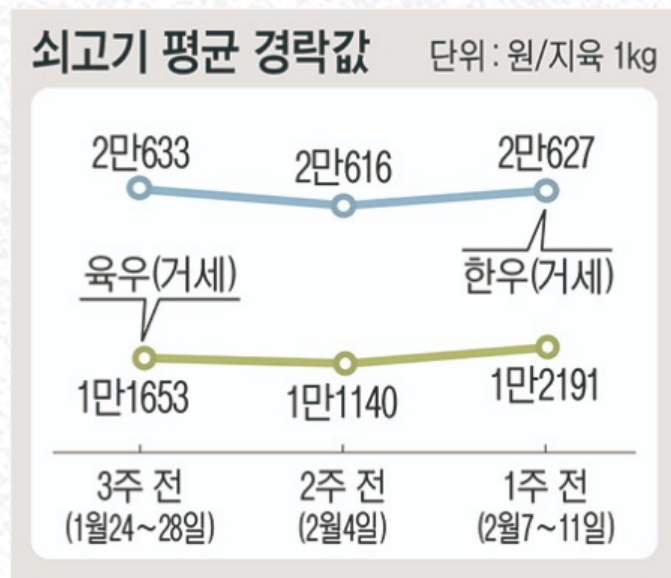
농식품부,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

전 략	주요 추진과제	감축량(백만톤CO ₂ eq, %)	
저탄소 사양 관리	▶ 저메탄사료 개발 등을 통한 장내 발효 개선 - 한육우, 젖소 저메탄 사료 30% 보급	△0.12 (4%)	△1.2 (36%)
	▶ 저단백사료 공급 등을 통한 분뇨 내 질소 저감 - 사료 내 단백질 함량 2% 저감 → 분뇨 내 질소 13% 감축	△0.63 (19%)	
	▶ 사육기간 단축, ICT 활용 정밀 사양관리, 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 발생량 감축	△0.45 (14%)	
가축 분뇨 적정 처리	▶ (돈분) 가축분뇨 정화처리 확대 - '20: 10% → '30: 25	△1.6 (48%)	△2.1 (64%)
	▶ (우분)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비농업계 이용 확대 - '20: 0.1% → '30: 8	△0.5 (15%)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확대('20: 6개소 → '30: 39) - '20: 1.3% → '30: 7	(△0.2) * 액체 분뇨 감축 적용	
		△3.3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과투입 관행을 저투입·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보급 확산, 사육기간 단축과 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을 통해 저탄소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0만 t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을 감축할 예정이다. 한·육우와 젖소에 대한 저메탄 사료 보급률은 2030년 30% 이상을 목표로 한다. 화학합성제·미생물제 등 국내 메탄저감제 개발은 2025년까지 진행한다.

저메탄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안도 올해 마련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해 농가단위 사용 확대를 유도해나갈 예정.



[축산물 출하정보] 〈소〉 (2월7일~2월11일) 경매물량 줄어 값 소폭 올라

한우 경락값은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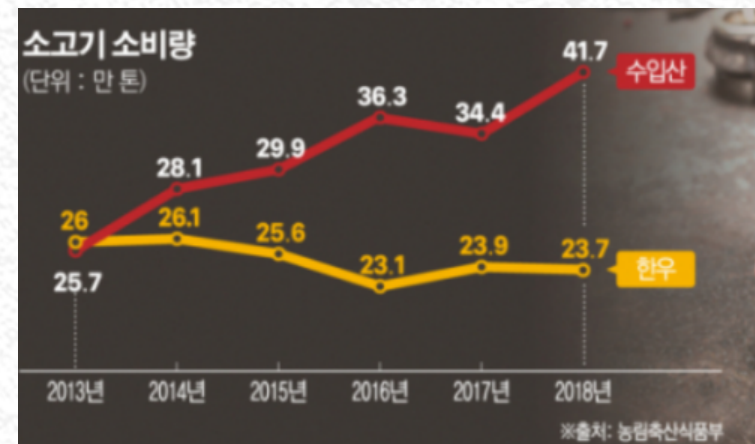
산지 대기물량이 많지만 출하를 관망하는 농가들이 늘며 경매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외식 소비량이 감소해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한우는 전국 도매시장에서 6644마리가 경매됐다.

한우 거세우 평균 경락값은 지육 1kg당 2만627원으로 전주 대비 1원 상승했다. 1++A 등급은 426원 오른 1kg당 2만5215원, 1++B 등급은 645원 오른 2만3531원이었다.

육우 거세우는 541마리가 거래됐으며, 1kg당 경락값은 1051원 오른 1만2191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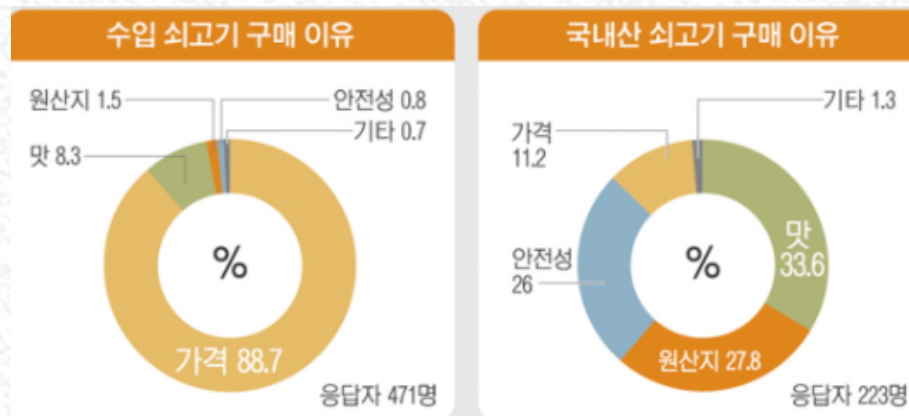
1인당<2021년> 쇠고기 소비량 미산이 국내산 앞서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 한우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3.6kg이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미국산이 5kg으로 국내산(한우, 육우 포함) 4.8kg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의 소비량은 '20년 4.2kg에서 '21년 4.4kg으로 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산은 4.4kg에서 5kg으로 13.6%가 증가했다. '21년 미국산 냉장육 구이용(등심, 안심, 채끝 등) 수입량은 1만4천926톤으로 전년대비 30%가 증가했다.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보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kg 증가한 반면 자급률은 38.9%에서 35.7%로 3.2%p 하락했다”며 “특히, 미국산 구이용 부위의 냉장육의 수입량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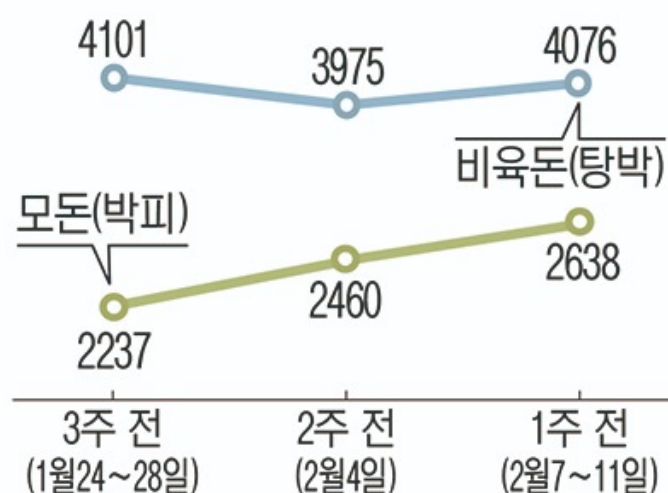
“한우 소비시장 분석... 타깃별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금번 연구는 한우고기 소비자 소비행태와 소비시장 변화를 실제 한우고기 구매자료를 이용해 과학적인 통계분석을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우산업의 중장기 소비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연구팀은 ▲소득과 세대별 ▲교육수준과 직종 ▲한우고기 대체육과 구매요인을 기준으로 구분해 우호 목표그룹과 확보 목표그룹을 나누어 마케팅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한우고기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고객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입쇠고기를 선호하는 특정 소비자 그룹에 대해 상품의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목표시장별 마케팅 전략으로는 한우고기 품질 향상과 신뢰 회복, 가격경쟁력 향상, 세대별로 다른 식품소비 문화의 이해와 마케팅 그리고 어우러짐, 고객 맞춤형 마이크로 마케팅 및 밸류마케팅, 빅데이터를 이용한 마이크로 타깃 마케팅, 수입쇠고기와 차별되는 한우고기의 이미지 정립을 제안했다.

돼지고기 평균 경락값 단위 : 원/지육 1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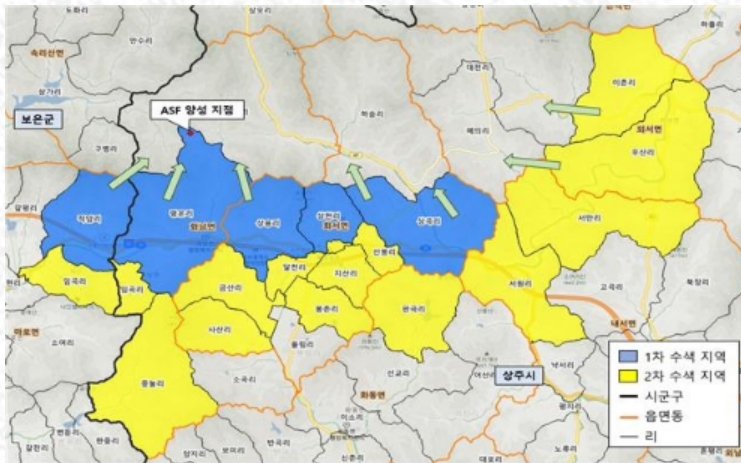


[축산물 출하정보] 〈돼지〉(2월7일~2월11일) 소비 침체로 약보합세 이어가

돼지 경락값은 소폭 상승에도 약보합세를 이어갔다. 설 연휴 이후 출하량이 늘어난 데다 야외 나들이용 소비 비수기를 맞아 소비 침체를 보인 것이 원인이다.

돼지는 지난주 전국 도매시장(탕박 기준, 제주·등외 제외)에서 1만 2278마리가 경매됐다.

지육 1kg당 경락값은 4076원으로 전주 대비 101원 상승했다. 모돈(박피) 1kg당 가격은 178원 오른 2638원이었다.



경북도 뚫렸다... 상주서 ASF 발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경북에서 처음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환경부는 경북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에서 발견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5개 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ASF 바이러스가 경북에 전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례로 ASF 발생지역은 모두 4개 도 (강원·경기·충북·경북), 26개 시·군으로 늘었다. 8일 기준 전체 발생건수는 2067건이다.

이번에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올해 1월28일 확인된 최남단 발생지점인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에서 약 11km 동쪽으로 떨어진 지점이다. 속리산국립공원 경계로부터 남쪽으로 2km 거리에 있는 곳이다.

환경부는 인근 지역으로 ASF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양돈농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경북도, 상주시,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쌍이는 삼겹 재고, 심상찮다



삼겹살 수입량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돈 재고물량 감소 속에 유독 삼겹살만 재고가 늘고 있다.

최근 육류유통수출협회가 회원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11월말 한돈 재고물량은 2만톤으로 전년 동월 7만2천톤에 비해 무려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부위들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 특히 수입물량이 줄면서 한돈이 기존 수입산 시장을 대체했던 저지방 가공용 부위들의 감소폭이 컸다. 그 중에서도 후지(5천400톤)는 전년 동월보다 무려 86% 급감했다.

그런데 유독 삼겹살 재고는 3천800여톤으로 일년전보다 16% 증가했다. 더욱이 전체 한돈 재고 감소에도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삼겹살만 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물량 감소에도 삼겹살만 수입이 급증했던 것이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삼겹살 소비자 가격이 지난해 연중 고가를 형성했던 만큼 높은 가격이 소비를 저해한 것은 아닌지도 우려되고 있다.

신축 양돈장 냄새관리 기준 강화



앞으로 신축 양돈장은 ‘냄새’에 대한 관리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모범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시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때와 동일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와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계획서가 그것이다.

사실상 사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과 같은 관리 기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농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년도	2021	2022	비교
출하 수(두)	157만6천	159만9천	▼ 1.5%
평균가격(원)	3,664	4,385	▲ 19.7%

새해 첫달 양돈시장 성적표는

새해 첫달 국내 양돈시장의 성적표가 나왔다.

지난해와 단순 비교시 출하는 늘고,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출하된 돼지는 157만6천9두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월 159만9천347두와 비교해 1.5% 감소했다.

아무래도 출하 잠재력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도매시장의 돼지 평균가격(등외, 제주제외)은 지육kg당 4천385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3천664원 보다 19.7% 상승했다.

하지만 설명절 연휴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온 데다 시장 흐름 자체는 지난해 보다 더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양돈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 특히 돼지 생산비가 대폭 상승, 새해 첫달 부터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이 적자경영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양돈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만두 이상 양돈장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케”



환경부가 돼지 사육규모 1만두 이상의 양돈장에 대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부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경기도 화성시갑)이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촉진 법률안’ 제정과 관련,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바이오가스 생산의무 대상을 초기에는 공공부문 의무 생산자 위주로 설정하되, 점차 민간부문 의무 생산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 사육두수 1만두 이상 양돈장 등 일정사육규모 이상의 ‘대규모 가축사육농가’ 1천811개소를 바이오가스 의무대상자로 지정, 가축분뇨 배출량에 따라 연차별로 적용해 나가는 방안이 그것이다.



수입계란 대량 폐기 처분... 혈세 ‘줄줄’

수입한 계란이 대량으로 폐기 처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혈세 낭비 논란과 함께 계란 관련종사자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은 계란 수입과 폐기에 1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분석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해온 계란들이 유통기한(냉장계란 기준 45일) 경과 등의 이유로 판매가 어렵게 되자 폐기에 나선 것.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도 6천여만원을 들여 이미 수입계란 6만8천932판(약 124톤, 200만여개)에 대해 폐기처리를 진행키도 했다. 혈세를 들여가며 수입한 계란 총 2천300여만개의 계란을 2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지불해 폐기한 것이다.

고병원성 AI 확산세 지속... 농가 차단방역 고삐 죄야



고병원성 AI는 이달 들어서만 농장 발생이 12건째 이어지고 있다. 10일 충남 아산 산란계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났고, 앞서 8일에는 충북 진천 종오리농장, 충남 예산 메추리농장 등에서도 확진됐다.

이들 농장에 대해선 의심축 신고가 들어온 즉시 살처분 조치와 함께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이번 겨울철 AI 발생건수를 모두 합치면 40건에 이른다.

철이번 겨울 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는 모두 31건인데, 최근엔 농장 발생이 없었던 부산 사하, 경남 김해, 강원 철원 등에서도 발견됐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7~13일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하는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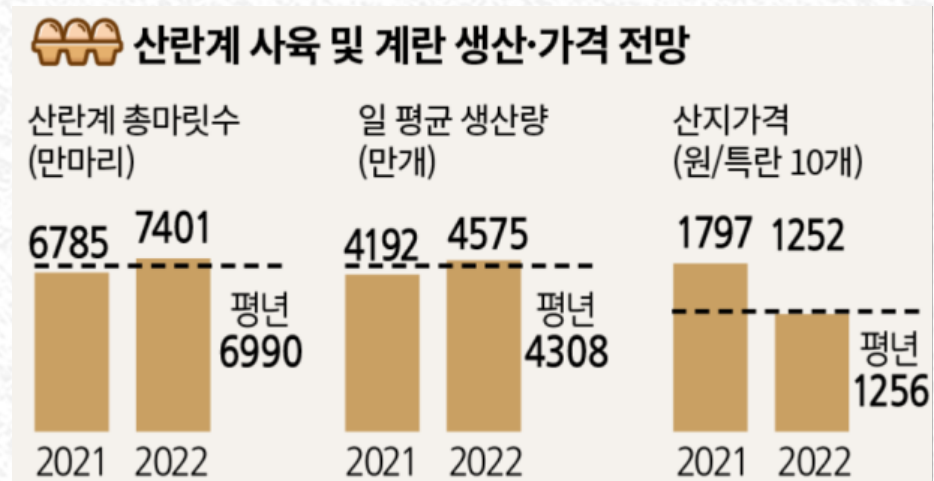
육계협, 국내 닭고기업계 증명표장 제도 시행

국내 닭고기 업계 최초로 증명표장이 등록된 품질보증마크 사용이 시작됐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이번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계협회가 정한 ‘닭고기제품의 품질보증마크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품질 및 위생수준과 국내산 닭고기 여부 등이 각각의 품질 및 위생기준과 국내산 닭고기 증명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보증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품질보증심사의 통과 기준은 ▲도축장 HACCP운용수준 ▲공인검사기관의 수질시험성적 ▲품목류 검사성적 ▲출하전 잔류물질 검사계획서 및 최근 검사실적 ▲자체 시험검사능력 ▲품질보증 및 리콜준수 각서 ▲자체 품질 및 위생검사 실적자료 등의 7개 항목이며, 국내산 닭고기 도축실적 평가 및 국내산 닭고기 판매실적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임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품질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품질보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이내에도 규정에 의해 품질에 대한 사후 심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AI 확산에도 계란값은 하락 추세



최근 들어 고병원성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계란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우려와 달리 계란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2020~2021년 AI 발생 당시 살처분된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이미 지난해 9월경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올해 1월에는 평년 수준을 크게 상회한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500m로 조정돼 농가 피해가 적었다는 것.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계란 생산량 증가로 오히려 설 명절 이후 가격 하락을 점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9일 현재 계란가격은 왕란 146원, 특란 141원, 대란 136원, 중란 123원, 소란 106원으로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